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7호 [루게 제23434호] 주제100 (2011)년 4월 27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으로 총공세의 진격속도를 최대로 높이자

백두산선군청년 1호발전소 발전설비생산 결속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로동계급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혁신의 새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다. 각기 수력발전소건설장들에 보내줄 발전설비생산투쟁의 불길들 세차게 지펴온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얼마전 백두산선군청년 1호발전소의 마지막발전기의 회전자조립과 중요부품가공을 계속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총공격전의 해인 올해를 전례없는 발전설비생산성과 빛나는 내일 충천한 각오로 밀쳐나선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생산투쟁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회전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줄 발전설비생산에 우선적인 힘을 쏟으면서 백두산선군청년 1호발전소 발전설비생산을 결속하기 위한 립체적인 작전을 펼치고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였다. 기업소에서는 해당 일군들을 발동하여 1호발전소의 발전기와 부대설비중에서 미진된 부분용량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생산지휘일

군들은 발전기가공 및 조립부문에 있어 기공들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몰두하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잘하여 부분용량가공계획을 매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발전설비 1가공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일터마다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타당반작용반의 기공들은 부철가공이 앞서야 회전자조립기일을 앞당길수 있다는 자각을 안고 가공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높은 가공속도를 보장하였다. 품이 많이 드는 자구압축단관가공을 맡은 기공들은 서로의 창조적기회를 합쳐가며 가공기일을 단축할수 있는 대담한 가공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태양절을 계기로 부철을 비롯한 발전기의 중요부품들의 가공을 기본적으로 결속하여 조립부문에 보내주는 혁신을 일으켰다.

발전설비조립직장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조립투가 긴장하게 벌어졌다. 이곳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이미전에 고정자조립을 끝내는데 맞게 회전자조립을 위한 준비를 앞세워나갔다. 회전자조립작업반, 자구조립작업반의 조립공들은 속과 부철의 맞춤, 자구조립을 비롯한 높은 기술기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해쳐서 회전자조립기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대안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백두산선군청년 1호발전소의 기본발전기생산을 이

미전에 끝낸 성과에 토대하여 공정별로 생산물결격을 출기하게 벌려 전류생산기생산을 끝내었다. 나라의 전력생산에 기여할 백두산선군청년 1호발전소의 발전설비생산을 빛나게 결속한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양양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지금 최전2호발전소의 발전설비생산투쟁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병춘 사진 본사기자 림학택

전에 끝낸 성과에 토대하여 공정별로 생산물결격을 출기하게 벌려 전류생산기생산을 끝내었다. 나라의 전력생산에 기여할 백두산선군청년 1호발전소의 발전설비생산을 빛나게 결속한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양양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지금 최전2호발전소의 발전설비생산투쟁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병춘 사진 본사기자 림학택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대고조전속도를 높이고있는 단천지구광업총국아래 여러 광산, 공장들에서 마그네사크링카생산을 부쩍 늘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필수기의 신심과 혁명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총합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년간에 마그네사크링카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그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배로 늘어났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달음과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총국아래 크링카공업부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기세충천하여 일터마다에서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있다. 총국의 책임일군들은 크링카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명백히 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총국아래 광산, 공장들의 로동계급은 높은 생산성과로 부장조

마그네사크링카생산 1.2배 달성 단천지구광업총국아래 광산, 공장들에서

국건설에 이바지할 불타는 열정으로 기세를 떨치며 지난해에 크링카생산을 비할바없이 끌어올려 올해에 들어와서도 계속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다. 단천마그네사광장, 성진내화물광장, 대흥청년영양광산, 풍양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우리의 자원으로 크링카생산을 내밀고있는 중지와 자부심에 넘쳐 로조업방법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생산을 늘이고있다. 나라의 종합적인 내화학생산기지로 꾸러진 단천마그네사광

장에서는 우리의 연료조건에 맞는 로조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크링카생산을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얼마전에도 장일비율을 개선하여 로 한기당 크링카생산량을 부쩍 높였을뿐 아니라 제품의 질적개선에서도 커다란 진전을 가져왔다. 성진내화물광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소성로의 만가공을 보장하여 크링카생산을 지난 시기보다 1.3배로 늘였다. 대흥청년영양광산과 풍양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현실발

전의 요구에 맞게 로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크링카생산실적을 훨씬 높였다. 총국적으로 경소마그네사생산기지가 늘어나고 생산실적이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단천마그네사광장에서는 회전로직장의 생산공정을 개편하고 질 좋은 경소마그네사를 광량 생산하고있으며 여러기의 로를 개건하여 생산능력을 지난해보다 1.2배로 확장하였다. 성진내화물공장에서 로개조전투를 힘있게 벌려 경소마그네사생산을 2배로 늘여나가고있으며 풍양광산에서는 경소마그네사생산기지를 세움에 따라 생산량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본사기자

새로운 기술로 고려약 생산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새로운 추출방법과 정제기술을 연구완성함으로써 고려약생선의 새로운 전장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학부인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적문제를 많이 연구해내야 합니다.》

이번에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약무부의 약사들이 내놓은 새로운 기술은 소화관방추출방법이다. 이 추출방법이 개발됨으로써 우리 나라에 흔한 고려약재료를 효능높은 정맥주사제를 생산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고충형동무를 비롯한 약제사들은 지난 시기 뇌막염, 뇌출혈을 비롯하여 뇌신경계통질병 치료에 널리 쓰이는 안구우황환보다 원가가 적게 들면서도 치료효과가 몇배나 좋은 안구우황주사약을 소화관방추출방법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우수충동무를 비롯한 약제사들은 고려약생산에 응집정제기술을 받아들여 정제효과를 종전보다 3배이상 높였다. 현재 이 방법에 의해 만들어지고있는 보간해정자는 색깔이 투명하면서 치료기일을 단축시키는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자아내고있다. 약제사들은 고려약생선의 중요방법인 성분분리방법도 새롭게 연구도입하여 많은 성

과를 이룩하고있다. 최광형동무를 비롯한 약제사들은 몇몇종류의 고삼어린 탐구 끝에 지난 시기와 다른 성분 분리방법으로 손상된 관절면용정상을도 회복시켜주어 관절염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글루코자민주사약을 최근에 만들어 내놓았다. 소화관방추출방법과 정제기술, 성분분리방법은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모든 시, 군고려약공장들에서도 얼마든지 받아들일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약제사들은 지금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더 좋은 성과를 이룩할 열의 밑에 힘찬 전투를 벌려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방경찬



인민생활향상을 이바지할 일련안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선교련직공장에서 -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려면 무엇보다도 굴진과 박토를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덕천지구 탄광련합기업소에서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굴진을 앞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다. 총합된 자료에 의하면 1.4분기에 제남탄광 1경과 덕천탄광 남산경에서 전량이 좋은 새 구역을 조업하였고 덕성, 남양, 형봉, 월봉, 서창청년탄광 등 련합기업소 탄광들에서 수십개의 예비채탄장을 마련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소당을 받들며 한마음하고 굴진을 힘있게 내밀어 전량이 좋은 채탄장을 계속 늘이고 석탄생산성과를 나날이 확대하고 있다. 당위원회는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석탄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으로 탄부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올해에 굴진을 앞세워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것을 목표로 내세운 련합기업소 9공부의 작전에 따라 제남탄광 9경, 덕성탄광 1경, 형봉탄광의 형봉경과 중동경, 서창청년탄광 2경, 월봉탄광 회문경구역을 전격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굴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올해 삼반년안으로 이대상을 달성할수 있는 기본적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석탄생산을 보다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릴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석탄공업 부문에서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탄광들을 힘을 집중하고 새 탄부들을 개발하여 석탄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고있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굴진력량을 집중하고있다. 석탄공업대회이후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은 일제히 탄광들에 내려가 고속도굴진, 굴진소대들에서 걸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주고 굴진공들과 함께 착암기를 잡고 위훈의 구슬땀을 흘리면서 그들의 열의를 부쩍 높여주고있다. 련합기업소적으로 무어진 굴진력량을 주요개소들에 집중배치하고 설비와 자재보장사업을 따라세우고있다. 이와 함께 고속도굴진, 굴진소대들사이에서 벌어지는 사회주의경쟁투를 실속있게 하여 탄광들에서 기본굴진과 준비굴진에 의한 확보탄량을 늘이도록 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중동경의 수백m구간에 대한 복구굴진을 다그치고있다. 서창청년탄광의 굴진소대들에서는 1.4분기에 삼반년째 목표대로 내세웠던 2경 심부구역에 대한 굴진과제를 기본적으로 끝낸 기세도높이 사정굴진에 진입하여 편일 높은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새 구역조업의 날을 앞당기고있다. 월봉탄광에 내려간 련합기업

소의 일군들은 탄광일군들과 함께 들끓는 막장에 내려가 생산지휘를 하면서 최전방의 생중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주어 굴진소대원들의 열의를 부쩍 높여주고있다. 덕성탄광 1경에서는 수백만 t능력의 새 구역을 조업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구장지구 탄광련합기업소에서

굴진의 신념, 굴진의 본래, 굴진의 실천력으로 인민생활대고조의 승리를 안아올 불같은 임업을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막아서는 에로와 난관을 맞받아뚫고나가면서 석탄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중동경의 수백m구간에 대한 복구굴진을 다그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석탄생산에 필요한 착암기와 베루를 비롯한 설비들과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줄도록 하여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힘있게 밀어붙여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위원회에서는 정치사업자료를 준비하여 탄광들에 내려보내주는 한편 화신식경전송의 복소리를 높이

고있다. 탄광의 돌격대원들은 지난 1.4분기에 새 구역개발을 위한 사정굴진을 앞당겨 끝내었다. 지금 이들은 남은 구역에 대한 굴진에 박차를 가하여 삼반년안으로 새 구역을 조업할수 있는 전장을 열어놓고있다. 제남탄광 9경에서는 심부에 전개된 여러 막장들에서 나오는 비록을 한꺼번에 모아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굴진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리고있다. 이밖에도 련합기업소의 고속도굴진, 굴진소대의 굴진공들은 기본굴진과 준비굴진에 의한 확보탄량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련속전공, 련속박토를 들이대면서 편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남양탄광 7경 김철수고속도굴진소대의 굴진공들은 앞선 발파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코대당 발파회수를 늘이면서 탄광의 생산전량을 믿음직하게 열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일군들과 탄부들은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전량이 좋은 채탄장을 편이 마련하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석탄생산을 높이고있다. 물론, 통수탄광의 일군들도 생산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하면서 중동경의 석탄증산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자재보장을 맡은 탄부들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련합기업소아래 탄광기계공장, 자재상사를 비롯한 보장부문들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석탄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부속품들과 자재들을 제때에 마련하여 탄광들에 보내주고있다. 올해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일터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중동경의 석탄생산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갱막장들에 내려가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고있다.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벨트콘베어를 비롯한 모든 설비들의 가

김덕 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전고속도굴진경기가 활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다. 올해 2월초부터 시작된 이번 고속도굴진경기는 각 도에서 선발추천된 착암공들을 위주로 하는 수백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고있다. 유색금속광물생선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간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돌격대를 뚫고 경적으로 달려온 이들은 경기시작부터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며 굴진실적을 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대고조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규모유색금속광물생산을

김덕 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전고속도굴진경기가 활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다. 올해 2월초부터 시작된 이번 고속도굴진경기는 각 도에서 선발추천된 착암공들을 위주로 하는 수백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고있다. 유색금속광물생선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간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돌격대를 뚫고 경적으로 달려온 이들은 경기시작부터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며 굴진실적을 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대고조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규모유색금속광물생산을

김덕 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전고속도굴진경기가 활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다. 올해 2월초부터 시작된 이번 고속도굴진경기는 각 도에서 선발추천된 착암공들을 위주로 하는 수백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고있다. 유색금속광물생선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간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돌격대를 뚫고 경적으로 달려온 이들은 경기시작부터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며 굴진실적을 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대고조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규모유색금속광물생산을

김덕 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전고속도굴진경기가 활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다. 올해 2월초부터 시작된 이번 고속도굴진경기는 각 도에서 선발추천된 착암공들을 위주로 하는 수백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고있다. 유색금속광물생선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간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돌격대를 뚫고 경적으로 달려온 이들은 경기시작부터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며 굴진실적을 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대고조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규모유색금속광물생산을

김덕 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전고속도굴진경기가 활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다. 올해 2월초부터 시작된 이번 고속도굴진경기는 각 도에서 선발추천된 착암공들을 위주로 하는 수백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고있다. 유색금속광물생선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간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돌격대를 뚫고 경적으로 달려온 이들은 경기시작부터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며 굴진실적을 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대고조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규모유색금속광물생산을

김덕 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전고속도굴진경기가 활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다. 올해 2월초부터 시작된 이번 고속도굴진경기는 각 도에서 선발추천된 착암공들을 위주로 하는 수백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고있다. 유색금속광물생선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간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돌격대를 뚫고 경적으로 달려온 이들은 경기시작부터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며 굴진실적을 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대고조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규모유색금속광물생산을

김덕 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전고속도굴진경기가 활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다. 올해 2월초부터 시작된 이번 고속도굴진경기는 각 도에서 선발추천된 착암공들을 위주로 하는 수백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고있다. 유색금속광물생선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간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돌격대를 뚫고 경적으로 달려온 이들은 경기시작부터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며 굴진실적을 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대고조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규모유색금속광물생산을

김덕 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전고속도굴진경기가 활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다. 올해 2월초부터 시작된 이번 고속도굴진경기는 각 도에서 선발추천된 착암공들을 위주로 하는 수백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고있다. 유색금속광물생선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간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돌격대를 뚫고 경적으로 달려온 이들은 경기시작부터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며 굴진실적을 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대고조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규모유색금속광물생산을

본사기자 리철욱

특약기자 리성호

특약기자 송창윤

진 달 래 는 불 게 란 다

불기운이 약동한다.
푸른 하늘가엔 햇빛넘치고 조국 땅우엔 창조의 물결 출렁인다.
격동의 이 시대가 그대로 봄날의 화원 되었는가 산에 들에 진달래 만발하고있어 온 나라는 그대로 환희의 꽃바다로 변했다.
가슴벅찬 오늘의 전변을 화폭에 담은다면 불빛머금은 진달래꽃바다 일것이고 그 거대한 전경화에 제목을 단다면 그것은 《승리의 봄》일 것이다.

지난 2월 어느날이었다.
그날도 인민생활대교조를 위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회의실에 피어있는 진귀한 화초를 보게 되시었다.

소담한 꽃잎에 초초한 빛깔, 그 우뚝한 향기를 비껴담은 꽃들은 불수룩 유정했다.
일꾼들도 저저마다 탄성을 터쳤다.

꽃도 아름답거나 그것이 안고 있는 사연 또한 감동적이었다.
해당 일꾼으로부터 그 꽃들이 향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존함을 모시고싶은 간절한 소망을 안고 어느 한 나라의 화초가들이 육중한 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들의 지성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신 후 추억같은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진달래를 제일 사랑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들은 어머니이 그리울 때면 진달래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아직은 산에 들에 진달래꽃잎이 보이지 않던 때였다.

하지만 그 시각 우리 장군님의 가슴을 어머니모습으로 꼭 채우며 끝없이 만발하던 내 조국의 진달래여, 우리 너에게 묻고싶다. 끝없이 너와 함께 속삭이고싶다.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께는 소박하고 부드러운 진달래의 모습이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천하제일의 명화로, 성스러운 존재로 소중히 간직되었는가.

마디마디 진정이 넘쳐흐르는 위대한 어머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이의 가슴에 차넘치는 뜨거운 인민애의 열도만을 새기지 않는다. 향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우리 인민의 혈연의 뉴대를 또 한 번 역세계 이어주었다는 감동만을 받아안지 않는다.
보다 심원한 위인의 혁명세계, 보다 열렬한 리상과 강렬한 기대가 여기서 빛날친다.
우리 다시 눈길을 들어 강산에 피어난 진달래를 바라본다.
금시라도 어머니께서 환희 웃으며 우리를 품에 꼭 안아주시는것만 같다.

말없이 미소를 뿌리는듯 한 연분홍빛갈의 그 포근한 자태, 마음을 따듯이 덥혀주는 그윽한 향기, 한 번 피기 시작하면 불길처럼 온 강산을 휩싸이는 열정의 기상...

바라볼수록 우리 어머니 진달래 꽃속에 환희 웃으시며 승리가 눈앞에 왔다고, 김일성동지의 후손단계 기어이 시련을 박차고 강성병영의 새봄을 꽃피우라고 촉부해 주시는것만 같아 우리 가슴 세차게 울렁인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생의 모든 것을 강그리 바치시었던 자신의 그 밝은 미소와 후더운 체위만은 우리 뒤 남겨두었다는 생각, 뜻깊은 올해에도 만경대의 봄, 조국 땅의 봄을 제일먼저 알리는 진달래 되시어 촉부의 꽃보라를 뿌려주고 계신다는 무한한 격동과 행복감이 심장이 뉘뉘고 격정이 솟구친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어머니의 미소!
승리가 지척에 보일수록 더더욱 찾게 되는 어머니의 고무의 목소리!

정녕 그날에 우리 장군님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심어주신 진달래는 꿈결에도 흘러드는 어머니의 그 미소, 그 목소리가 아니었던가.

진달래, 바로 이것으로써 위대한 이께서는 오늘의 대고조전군에 활력을 부여주시었고 승리에로 나래지는 선군천리마에 또 한번 박차를 가하시었다.

우리 얼마나 진달래에 대해 많이 말해왔고 시와 노래, 춤가락에 담아왔던가.
때로는 봄의 선구자로, 때로는 조국해방의 상징으로...

김일성민족의 100년사가 총화되는 오늘의 중대한 시점에서 진달래의 의미는 천배배로 부각된다.
세월은 많이도 흘렀고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

들이 우리 혁명의 주력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것이 변한다 해도 이 땅의 공민들이 변함없이 간직하고 살아야 할것이 있다.
어머님의 혁명정신이다.

진달래야말로 오늘날도 살아있는 어머니의 넋이다.
그 어떤 절체고도에서도 수령만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태양우위의 정신, 조국과 혁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을 강그리 바칠줄 아는 불굴의 희생정신, 시련의 눈보라를 뚫고 오직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대변해온 꽃에는 제나름의 언어가 있다.

—존엄한 겨울과 끝까지 싸우라, 그러면 봄은 꼭 온다!
이것이 진달래의 꽃말일것이고 진달래의 불멸의 철학일것이다.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대변해온 꽃에는 제나름의 언어가 있다.
—존엄한 겨울과 끝까지 싸우라, 그러면 봄은 꼭 온다!
이것이 진달래의 꽃말일것이고 진달래의 불멸의 철학일것이다.

지동지서 겨울과 태동하는 봄! 부드럽고 연한 진달래이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힘, 강자의 도도한 기상이 맥박친다.

진달래의 불멸의 철학일것이다. 부드럽고 연한 진달래이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힘, 강자의 도도한 기상이 맥박친다.

진달래의 불멸의 철학일것이다. 부드럽고 연한 진달래이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힘, 강자의 도도한 기상이 맥박친다.

진달래의 불멸의 철학일것이다. 부드럽고 연한 진달래이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힘, 강자의 도도한 기상이 맥박친다.

진달래의 불멸의 철학일것이다. 부드럽고 연한 진달래이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힘, 강자의 도도한 기상이 맥박친다.

진달래의 불멸의 철학일것이다. 부드럽고 연한 진달래이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힘, 강자의 도도한 기상이 맥박친다.

진달래의 불멸의 철학일것이다. 부드럽고 연한 진달래이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힘, 강자의 도도한 기상이 맥박친다.

국진군의 총성으로 이어지고 해방의 종소리로 메아리쳤거늘 바로 그때부터 우리 인민에게는 진달래가 승리만을 약속해주는 희망의 꽃으로 억척같이 자리잡지 않았던가.

조신의 진달래는 범상한 꽃이 아니다.
어머님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전하는 성스러운 추억의 꽃이고 언제나 백승만을 펼치는 조신의 상징이다.

최후의 웃음을 짓는 승리자!
바로 여기에 오늘의 정의롭고 희망에 넘친 선군혁명시대가 비껴있고 지구의 어지러운 회오리바람을 날려내고 강성대국승리의 봄우뢰를 터치게는 대고조전군기상이 빛날치고있다.

인공지능위성의 발사, 지하핵실험의 성공, 최첨단돌파의 연속적인 포성...

시시각각 변을 안고 태동하는 이 땅에 피는 진달래야말로 시련의 겨울을 끝낼때 이겨내고 마침내 리이것이 진달래의 꽃말일것이고 진달래의 불멸의 철학일것이다.

진달래의 불멸의 철학일것이다. 부드럽고 연한 진달래이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힘, 강자의 도도한 기상이 맥박친다.

진달래의 불멸의 철학일것이다. 부드럽고 연한 진달래이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힘, 강자의 도도한 기상이 맥박친다.

진달래의 불멸의 철학일것이다. 부드럽고 연한 진달래이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힘, 강자의 도도한 기상이 맥박친다.

진달래의 불멸의 철학일것이다. 부드럽고 연한 진달래이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힘, 강자의 도도한 기상이 맥박친다.

진달래의 불멸의 철학일것이다. 부드럽고 연한 진달래이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힘, 강자의 도도한 기상이 맥박친다.

진달래의 불멸의 철학일것이다. 부드럽고 연한 진달래이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힘, 강자의 도도한 기상이 맥박친다.

만 한 이 세상 가장 정의롭고 아름다운 혁명이다.
우리 눈앞에 선군의 붉은 철령이 높이 솟아오른다.
추억도 새로운 뜻깊은 4월의 그 봄날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얼마나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던가.

철쭉은 원래 진달래가 질무렵에 피는 꽃인데 벌써 이렇게 피어났다고, 우리모두 승리의 신심안고 달려나가자고 힘있게 고무하시던 장군님의 그 뜨거운 음성.

향일의 그날 우리 어머니께서 활짝 핀 조국의 진달래에서 해방된 인민의 나라를 그려보셨듯이 우리의 장군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철령의 붉은 꽃바다에서 강성병영의 새봄을 뜨겁게 그려보셨다.

진정 우리 장군님께서 그 값고많은 《철령》들을 노래하시며 부르고 또 부르시던 노래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선군조선의 최후승리를 그리시며 마음속에 피우시던 신념의 진달래였고 제국주의압살책동에 철수를 내리시며 우리 장군님 심장으로 높이 추켜드셨던 또 하나의 총대였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그리운 어머니의 모습과 함께 소박하고 부드러운 정과 그윽한 향기를 안겨준다고 의우시며 애국의 한길만을 꽃같이 이어가시는 장군님의 발걸음따라 조선혁명이 전진하고 우리 시대가 흘러가고 최후승리가 마중온다.

진달래는 잊보다 먼저 꽃을 피운다. 겨울을 이겨낸 가지에, 그것도 가장 끝자리에만 꽃망울을 자태

진달래는 잊보다 먼저 꽃을 피운다. 겨울을 이겨낸 가지에, 그것도 가장 끝자리에만 꽃망울을 자태

진달래는 잊보다 먼저 꽃을 피운다. 겨울을 이겨낸 가지에, 그것도 가장 끝자리에만 꽃망울을 자태

진달래는 잊보다 먼저 꽃을 피운다. 겨울을 이겨낸 가지에, 그것도 가장 끝자리에만 꽃망울을 자태

진달래는 잊보다 먼저 꽃을 피운다. 겨울을 이겨낸 가지에, 그것도 가장 끝자리에만 꽃망울을 자태

진달래는 잊보다 먼저 꽃을 피운다. 겨울을 이겨낸 가지에, 그것도 가장 끝자리에만 꽃망울을 자태

우리는 진달래의 모습에 언제나 자신을 비추어보며 살자.
존엄한 겨울엔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로 살고 봄이엔 통쾌도 꽃송이되어 햇빛의 귀중함을 체질먼저 알리는 진달래!

진달래의 그 순결무구한 정신으로 살 때 수령결사옹위의 숲은 더욱 무성해질것이고 강성병영의 새봄은 앞당겨질것이다.

진달래는 우리모두에게 혁명가의 영광을 가르쳐준다.
생전에 우리 수령님께서 자신께서는 활짝 핀 진달래를 볼 때마다 간고했던 항일혁명투쟁시기가 생각나 시라도 읊고싶은 충동을 받는다고 하신것처럼 진달래는 태양의 심장을 처음으로 울린 혁명의 꽃, 혁명가의 보람과 기쁨을 더해진 빨찌산의 꽃이었다.

얼마나 숭엄한 추억이 진달래, 너의 꽃잎에 비껴있고 얼마나 영광넘친 세월이 너의 향기에 실려있는가.

때로 두견화라고 불리울만큼 우리 민족의 피어린 역사를 간직해온 꽃.

《향일의 그 나날 투사들의 가슴에 《사향가》의 선물되어 짓고도 쓰러진 선우의 봉분앞에 조국의 향기를 대신하며 피어있던 꽃.

내 조국의 진달래가 백두산쪽으로 가면서 류달리 꽃과 끈것은 백두산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마다에 선형들이 뿌린 선혈이 그대로 꽃잎의 색조가 되고 그들의 넋만이 억연시들줄 모르는 줄기가 되고 잎이 되었기때문이라.

이 땅은 그저 흩어 아니다.
선혈들의 승고한 넋이 살아숨쉬는 피영이었고 그들의 부락안고 그 위에 끝없이 만발하는것이 내 조국의 진달래여겨를 우리 내조국 땅을 무심히 바라볼수 있고 이 땅에서 무심히 살수 있오라.

조국은 결코 부유해지지 않는다. 강성대국의 대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

조국과 인민, 후손대대를 위해 선혈들처럼 자신을 뿌리도, 밀거름으로 바치는 애국자들이 많을수록 승리의 시간표는 더욱 앞당겨질것이다.

우리는 김일성조선의 100년사가 총화되는 성스러운 해인 동시에

어머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을 눈앞에 둔 결정적인 시기이다. 리상실현의 책임적인 중임을 지닌 혁명의 3세, 4세로서 어머니께서 한평생 사랑하신 진달래를 다시금 심장에 안아보느라 면 못 잊어 떠오르는 화폭이 있다.

지난해 5월 18일, 역사적인 중국방문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부디 진달래꽃 활짝 핀 5호물동기로 걸음을 옮기신 우리 장군님.

아마도 그 시각 우리 장군님께서는 사무치게 그리운 어머니께 가슴속방문을 조용히 아뢰시었으리.

세인이 놀래우는 다계단별로 기어이 이 땅우에 강성대국꽃바다 펼쳐놓고 수령님께 삼가 승리의 보고를 드릴 불라는 열심으로 심장을 뚫어놓으셨을 장군님의 무한한 혁명세계가 우리 가슴 세차게 흔든다.

다가오는 2012년의 태양절, 화창한 그 봄날에 수령님께 총정의 꽃다발을 드려야 할 이 나라 공민들이여,

그대들이 진정 우리 수령님앞에, 우리 어머니앞에 멋뻐한 전사로 나서려거든 진달래의 혁명세계를 안고 위훈의 선구자가 되라.

결사의 그 투쟁에서 때로 용기가 필요되고 고무가 요구될 때 진달래의 억센 기상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라.

그러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고 강성대국의 승리가 보이리라.

진달래는 조신이 타고난 위인복을 전해주고 오늘날도 위대하고 때로는 더욱 창창할 조신의 미래를 축복한다.

이 땅이 있고 저 하늘의 태양이 있는 한 진달래는 언제나 피어나듯이 김일성조선은 위대한 어머니의 그 정성, 그 계획, 그 목소리를 안고 주체의 강성대국선포의 포성을 보란듯이 울리고있을것이다.

그날을 누우보다 간절히 소원하시며 김정숙어머님은 오늘날도 향일의 군복차림으로 진달래꽃을 안고 오산덕에 서계신다.
2012년의 그 만세소리, 강성대국승리의 그 환희로운 진달래꽃바다를 그려보시며 우리 모두를 이끌고계신다. 축복해 주고계신다.

박 옥 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로 때
포고공화국 대통령
포르에쏘집나
그나싱그베각하

나는 포고독립 51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민족적화해와 단합, 사회경제적발전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100 (2011)년 4월 22일 평양

프리타운
시에라레온공화국 대통령
어니스트 바이 코로마각하
나는 시에라레온독립 5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호상 리익에 맞게 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고 사회경제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100 (2011)년 4월 25일 평양

프페트리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자코브 게들레이
흘레키사 주마각하

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경절인 자유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민족적단합과 사회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100 (2011)년 4월 26일 평양

전화의 나날에 취해주신 조치

어머이수령님의 한평생은 이 민위훈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사랑의 한평생이다.

블비출아지는 전화의 나날에 채택된 내각결정 제189호는 오늘날도 인민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신 위대한 어머니의 한없는 은정을 뜨겁게 전하여 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수령님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승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으신 인민의 위대한 어머니이십니다.》

주제 39 (1950)년 12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멀고 험한 발길을 달려서 당시 내각이 자리잡고있던 강계에 도착하시었다.

그때 내각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심을 주셔야 할 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이의 지도밑에 진행되게 될 내각전원회의만 보아도 많은 토의안건들이 상정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도착하시었다. 그때 내각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심을 주셔야 할 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이의 지도밑에 진행되게 될 내각전원회의만 보아도 많은 토의안건들이 상정되고있었다.

이 없다고 하면서 미국놈들과 싸워서 우리가 꼭 이길수 있다고, 그때는 이것같은 것은 문제로 되지 않을것이라고 말씀 올리였다.

소박한 로인의 진정에 넘친 말에서 오직 땅을 밟고 굳게 서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신념과 강毅한 의지를 더욱 깊이 절감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말이 옳다고,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것이며 높음이 마하라는 자태 앞으로 더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로인과 헤어져 강계로 오시면서 줄곧 불라는 거리, 한지에 나앉은 인민들에 대하여 생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토의해야겠다고 하시면서 강계로 오시면서 목격하신 사물을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계로 오시던 길에 미국놈들의 폭격으로 집을 잃은 한 로인을 만나시었다.

그때 로인은 위대한 수령님께 미국놈들이 제이대도 폭격을 하며 야단을 친대도 우리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아무 근심

이 없다고 하면서 미국놈들과 싸워서 우리가 꼭 이길수 있다고, 그때는 이것같은 것은 문제로 되지 않을것이라고 말씀 올리였다.

소박한 로인의 진정에 넘친 말에서 오직 땅을 밟고 굳게 서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신념과 강毅한 의지를 더욱 깊이 절감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말이 옳다고,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것이며 높음이 마하라는 자태 앞으로 더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로인과 헤어져 강계로 오시면서 줄곧 불라는 거리, 한지에 나앉은 인민들에 대하여 생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토의해야겠다고 하시면서 강계로 오시면서 목격하신 사물을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계로 오시던 길에 미국놈들의 폭격으로 집을 잃은 한 로인을 만나시었다.

그때 로인은 위대한 수령님께 미국놈들이 제이대도 폭격을 하며 야단을 친대도 우리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아무 근심

이 없다고 하면서 미국놈들과 싸워서 우리가 꼭 이길수 있다고, 그때는 이것같은 것은 문제로 되지 않을것이라고 말씀 올리였다.

소박한 로인의 진정에 넘친 말에서 오직 땅을 밟고 굳게 서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신념과 강毅한 의지를 더욱 깊이 절감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말이 옳다고,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것이며 높음이 마하라는 자태 앞으로 더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로인과 헤어져 강계로 오시면서 줄곧 불라는 거리, 한지에 나앉은 인민들에 대하여 생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토의해야겠다고 하시면서 강계로 오시면서 목격하신 사물을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계로 오시던 길에 미국놈들의 폭격으로 집을 잃은 한 로인을 만나시었다.

그때 로인은 위대한 수령님께 미국놈들이 제이대도 폭격을 하며 야단을 친대도 우리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아무 근심

이 없다고 하면서 미국놈들과 싸워서 우리가 꼭 이길수 있다고, 그때는 이것같은 것은 문제로 되지 않을것이라고 말씀 올리였다.

소박한 로인의 진정에 넘친 말에서 오직 땅을 밟고 굳게 서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신념과 강毅한 의지를 더욱 깊이 절감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말이 옳다고,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것이며 높음이 마하라는 자태 앞으로 더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철령이여, 길이 전하라! 조국의 운명 지키시려 견고결의신 선군령장의 거룩한 자욱자욱을

본사기자 장정민 찍음

참신한 포전정치사업

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설참에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키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무비의 탁월과 배짱, 특출한 영도력을 지닌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아래 우리 인민군대가 오늘 현대적인 공적수단과 방이수단을 다 갖추고 제국주의자들의 막대한인 공세를 결을 무마다 짓부셔버리고있다는 그의 이야기는 대중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병영을 위하여 끊임없는 헌신지도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은 알곡생산성으로 받들어나가자고 힘있게 호소하였다.

지금 리안의 모든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위대한 선군정치로 내 조국을 온 세상에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당면한 영농작업에서 편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동봉사원 리 광 북

로동봉사원 리 광 북

로동봉사원 리 광 북

로동봉사원 리 광 북

로동봉사원 리 광 북

로동봉사원 리 광 북

로동봉사원 리 광 북

선군으로 민족의 존엄을 빛내주시는 천출명장

조선인민군창건 79돐!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무력을 창건하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나날은 우리 백두산혁명강군이 가장 포악한 제국주의강적들과의 대결전에서 변천전승하며 민족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어 위대한 승리의 력사, 성스러운 민족수호의 년대기로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뜻깊은 건군절을 맞이한 우리 인민들은 일찌기 선군의 기치높이 민족수호의 천대를 추켜들고 나라의 자주독립과 평화, 민족민대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건군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아울러는 인류가 높이 우러르는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김일성동지를 모신 거대한 민족적행운을 증시높이 노래하고있다.

남겨져 계신데도 회색의 천출명장의 선군혁명명도도 강철같은 자주의 생애, 평화수호의 보루로 우뚝 솟아 빛나는 우리 공화국을 한없이 동경하면서 영웅적조선인민군에 대한 찬송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그들은 《유일초대국》이라고 불리는 미제의 횡포한 침략기도를 짓부셔버리며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위력은 곧 위대한 선군정치이

래 불멸의 혁명강군으로 자랑난 조선인민군의 위력이라고 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말하고 있다.

여기에 남조선의 한 군사평론가가 쓴 글이 있다. 그는 자기의 글에서 《미국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약소국들을 마구 힘으로 짓밟으면서도 북에는 실지로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이렇게 썼다.

《북의 인민군대는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기인 자폭정신으로 무장하고있으며 미국에 가장 두려운 공포감을 주는,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할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있다. 정신력으로 보나 군사기술장비의 첨단화수준으로 보나 완벽한 경지에 이른 이북의 인민군대가 두려워 미국은 핵개발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도 선뜻 덤벼들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이런 무적의 권력을 다져놓은 인민군대위원장인 김일성동지께서 세상이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탁월한 군사적의 영재이다.》

이것은 미단 그 한사람의 심정만이 아니다. 우리 인민군대가 철벽의 방어수단과 위력있는 공격수단을 다 갖춘 필승불패의 강군으로 강호발전된것이다. 일대일의 전투력을 과시하며 세계군사력의 정란을 자아내는것도,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는것도 다

경에 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혁명명도의 결과라는것을 남겨계시려는 잘 알고있다.

그들이 우리 혁명무력의 필승의 기상과 배양,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보여준 천출명장을 모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금치 못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은 힘이 있어야 지켜지고 빛나게 된다. 위대한 선군정치는 불멸의 군력으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적발전을 담보하는 강력한 애국적의 보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종대를 중시하시셨을것이 우리 민족은 발복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였으며 세계 《최강》을 뿜내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보기가 형편이 없게 되었다. 내 민족으로 필승이 있다.

오늘 우리 조선인민군이 누리고있는 선군의 덕을 무슨 말로도 표현할수 없으리. 미제의 악랄하고도 끈질긴 전쟁도발책동을 걸음걸음 짓부셔 이 땅의 평화를 지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준것을, 본령의 이름에 신음하는 거북에게 6.15공동선언을 안겨주고 민족통합과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것과 더불어 위대한 선군정치, 김일성동지께서 세상이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탁월한 군사적의 영재이다.》

이것은 미단 그 한사람의 심정만이 아니다. 우리 인민군대가 철벽의 방어수단과 위력있는 공격수단을 다 갖춘 필승불패의 강군으로 강호발전된것이다. 일대일의 전투력을 과시하며 세계군사력의 정란을 자아내는것도,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는것도 다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신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찬송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 울려나오고 있다. 남조선의 인터넷들에서는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과 안겨주시는 조선인민군을 그 어떤 강적도 쳐물리칠수 있는 무적의 대오로 강화발전시키고계신다고 격찬하는 글들이 계속 실리고있다.

남조선 《민권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최근에 인터넷을 통하여 발표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찬송》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다. 《선군정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인민군대에 대한 믿음을 출발한것이다. 조선인민군의 위상을 미국의 군사적위협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부대에 그치지 않고 떠나가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운것은 김일성장군님의 선군정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것이다.》

김일성장군님의 믿음은 1992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창건 60돐 기념행사에서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을것을 축복하신것은 언설에 합치되어있다. 또한 지금까지 어느 사회주의국가나 사상사상론가도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지명하지 않았으며 국방위원장님께서 선행리론과 기존의 틀을 깨고 다박출소, 오성산, 초도, 판문점 등

수많은 인민군부대현지시찰을 통하여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으로 키우시었다. 특히 그이께서 위엄이 마르는 최전방부대현지시찰을 하시는 파격에 최고사령관과 인민군병사들사이에서 긴밀한 유대감과 믿음이 형성되고있다.》

계속하여 필자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군중시정치를 하여 혁명적군인가정, 총대가정들이 생겨나고 전국군민이 통일성자대회까지도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광풍은 오직 경에하는 장군님의 선군명도하에서만 볼수 있는것이라고 밝혔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교수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선군정치는 민족의 생명이고 존엄이다. 내가 바로 민족이 살려면 선군정치를 절대 지지하고 성원해야 한다. 내 민족 살리고 내 겨레 번영케 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선군정치 만세!》

남조선의 한 신문기자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지금 이념의 뜻있는 사람들은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찬송이 있을것을 축복하신것은 언설에 합치되어있다. 또한 지금까지 어느 사회주의국가나 사상사상론가도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지명하지 않았으며 국방위원장님께서 선행리론과 기존의 틀을 깨고 다박출소, 오성산, 초도, 판문점 등

4월의 봄을 안고 사는 남북의 마음

대를 이어 전해지는 일화

남조선강원도 고성군 화진포 사람들은 조국이 해방된 후 자기들의 고향을 찾아서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으로 남과 달을 보내고있다. 그들에게는 대를 이어 전해지고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진포마을을 찾으신것을 때였다고 한다. 그때 마을어구에 놓여있던 다리마 돌출선에 내린 큰 소낙비로 하여

물에 잠겨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있던 한 머슴꾼출신의 젊은이가 아버지수령님을 알아보고 성큼 나서며 땅을 분어받고 보답을 드리지 못하고있었는데 이런 때 김일성장군님은 엄고 시마물을 건네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청을 드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한평생 동지들과 인민들을 업어주면 업어 주었지 그들의 등에 업혀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젊은이는 자기같은 비천한 사람도 인간으로 대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덕담에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후부터 그는 민족의 어머니를 만나고는 감격과 기쁨, 아버지수령님의 고대한 인품과 덕담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주었으며 그 이야기는 오늘날 그 자식들과 마을사람들에 의해 전해지고있다고 한다.

고 흥분된 심정을 안고 말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남조선의 관계당국까지도 《김일성주석님께서 몸소 쓰신 회고록에 대한 관심도는 1960년대에 출판되어 이남최고의 인기서적으로 되었던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에 대한 탐독을 위기를 훨씬 넘어서고있다.》고 평하였다.

남조선땅에 일고있는 회고록열풍, 그것은 영원한 4월의 봄을 안고 사는 남북민심의 열기이다.

남해가에 피어난 태양의 꽃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세상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의 심정을 풀어준다. 남조선의 학계, 언론계, 종교계, 정계와 각계층 인민들속에서도 아버지수령님의 회고록은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널리 읽히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그것을 가리켜 《회고록열풍》이라고

말한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출판사대표는 이에 대하여 《김일성주석님의 탄신절을 앞두고 회고록출판의피가 상당히 많았다고하는데 주석님의 빛나는 존엄과 불멸의 일대기가 《세기와 더불어》에 의해 인민들에게 더 잘 알려지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출판사에서도 《참된 봄을 부르며》라는 제목으로 회고록을 다량 출판해서 서점에 내놓았는데 대 며칠사이 1만 5000부 이상이 나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세상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의 심정을 풀어준다. 남조선의 학계, 언론계, 종교계, 정계와 각계층 인민들속에서도 아버지수령님의 회고록은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널리 읽히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그것을 가리켜 《회고록열풍》이라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안

민주공화, 만마인사 담화 발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발표 18돐에 즈음하여 민주공화, 만마인사 담화를 발표하였다.

민주공화-조선친선 및 현대성평화 위헌장 오메대 가스통음료는 13일 담화에서 반민권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조선민족이 장강대국이 넘도록 본령의 비극을 겪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족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8년전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하시었다.

전민족의 대단결로 분별과 대결을 막고 민족의 리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에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할데 대한 주체의 통일대강은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의 자주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았으며 오늘날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으로 인정되고있다.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시며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헌신해오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조선의 북과 남 그리고 해외의 전체 조선인민이 6.15 북남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조선민족끼리 연방제통일방안을 실현하리라고 때 본령의 장벽은 무산되고있다.

행복은 이룩될것이다. 만민동족의화합연구소 소장 장 문은 6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조선의 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조국통일 3대원칙, 고려민주헌법방호조약, 남북합의서와 함께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 조선민족이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조국통일 3대원칙으로 정립해주시었다.

전체 조선인민이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높이 들고 굳게 단결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뿔쳐 나설 것을 호소

남조선의 4월혁명과 《세상》을 바꾼 민족의 힘

남조선의 4월혁명과 《세상》을 바꾼 민족의 힘》 준비위원회가 19일 서울에서 4.19인민군부대원들에 대한 합동추모식을 가졌다.

추모식에서 발언자들은 4.19봉투의 력사적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들은 오늘 사회의 민주화

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현실은 전체 민중에 51년전 그날처럼 다시 한번 떨쳐일어나달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하였다.

봉기자들의 넋전대로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각계 민족이 하나로 뭉쳐 적극 투쟁해나가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권고한 《보안법》이 아직도 존재하고있다는것은 수치라고 밝혔다.

외세가 갈라놓은 이 땅을 하나로 잇고 부강번영할 통일조국의 패를 가지자고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파쇼악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보안법》에 의한 피해자들이 모든 항성세력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악법의 철폐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한몸 바쳐 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 호전광들 획책

도발적인 전쟁연습 획책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피괴호전광들이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일대에서 도발적인 《대테러종합훈련》 등을 감행할것을 획책하고있다.

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테러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북침전쟁연습에 피괴폭제공공무력과 민간, 행정, 경찰기관들까지 동원시키려 하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거리의 힘에 역행하여 남조선호전세력은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장격화를 노린

최근 북침전쟁연습에 들뜬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평가가 극도에 달하고있다.

얼마전 호전광들은 서해해상에서 그 누구의 《침투》 및 《국지도발》을 운운하며 피괴폭, 핵, 공군무력의 합동훈련이 벌어졌을것을 빌어놓았다.

이보다 앞서 피괴폭군은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침투》와 《국지도발》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경기도와 강화도일대에서 화약내를 질게 쫓아다녔다. 또한 고성일대에서 소 함동훈련이 있었을것을 빌어놓았다.

최근 호전광들은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의 책임을 억지로 우리에게 넘겨주며 잊지도 않는 그 누구의 《해상 및 내륙, 공중침투 등 다양한 도발》에 대해 잘 준비하고있다고 한다. 아직도 저들이 팽창한 위위를 받고나 있는듯이 말이다.

입은 비틀어졌어도 말은 바르도록 하라고 하였다. 올해에 우리가 북남사이의 교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 대결구면을 해소할데 대한 여러가지 중대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는것은 사실이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세계의 공정한 여론들이 극구 지지, 찬동한 우리의 대화체와 성의있는 노력이 어떻게 도발이 될수 있으며 위협이란 또 무슨 피이한 소리인가.

구태여 《도발》에 대해 말한다면 그 장본인은 다른이런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다. 지난 해에 일어난 특대형도발사건인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도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야망이 빚어진 반공화국도발

사건이었다. 올해에도 우리를 자극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호전세력의 기도는 한두번만 드러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남조선 각계가 호전광들의 위협찬탄한 망당이 《국지전쟁을 일으키려는 기도》라고 우려를 표시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보수당국이 과격하게 있지 않는 우리의 《도발》을 운운하며 대대적인 전쟁불장난소동을 벌여놓는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선민족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주장하는 내외여론에 찬물을 끼얹고 대결정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며 북침전쟁도발책동에 어둠 박자를 가져다주는 데 있다.

보수집권세력은 이미년부터 세로로 《서해교전준비》만족을 기라. 그 기업을 토하며 우리의 대화체에 도전하여 무력증강과 북침전쟁정세에 피논이 되어 날뛰었다.

실제로 호전광들은 연평도를 비롯한 한해상분계선주변일대에 수많은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었으며 이 지역에서 군사연습을 매일같이 벌여놓고 도발의 기회만을 엿보고있다. 지난 3월 피괴폭부가 백령도 서남쪽과 연평도 동남쪽해상에 각종 포를 쏘아대며 전쟁광기를 부린 사실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이것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자들만이 할수 있는 호전적망동이다.

제반 사실은 이 땅에서 누가 군사적도발을 피하며 전쟁위험을 몰아주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거리의 힘에 역행하여 남조선호전세력은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구제역 련이어 발생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경부고속도로에서 17일에서 이어 19일에도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감염된 짐짓승들을 모두 매몰처분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보수당국이 과격하게 있지 않는 우리의 《도발》을 운운하며 대대적인 전쟁불장난소동을 벌여놓는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선민족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주장하는 내외여론에 찬물을 끼얹고 대결정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며 북침전쟁도발책동에 어둠 박자를 가져다주는 데 있다.

보수집권세력은 이미년부터 세로로 《서해교전준비》만족을 기라. 그 기업을 토하며 우리의 대화체에 도전하여 무력증강과 북침전쟁정세에 피논이 되어 날뛰었다.

실제로 호전광들은 연평도를 비롯한 한해상분계선주변일대에 수많은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었으며 이 지역에서 군사연습을 매일같이 벌여놓고 도발의 기회만을 엿보고있다. 지난 3월 피괴폭부가 백령도 서남쪽과 연평도 동남쪽해상에 각종 포를 쏘아대며 전쟁광기를 부린 사실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이것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자들만이 할수 있는 호전적망동이다.

제반 사실은 이 땅에서 누가 군사적도발을 피하며 전쟁위험을 몰아주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북침전쟁연습 감행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피괴호전광들이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일대에서 도발적인 《대테러종합훈련》 등을 감행할것을 획책하고있다.

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테러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북침전쟁연습에 피괴폭제공공무력과 민간, 행정, 경찰기관들까지 동원시키려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피괴폭군은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침투》와 《국지도발》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경기도와 강화도일대에서 화약내를 질게 쫓아다녔다. 또한 고성일대에서 소 함동훈련이 있었을것을 빌어놓았다.

최근 호전광들은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의 책임을 억지로 우리에게 넘겨주며 잊지도 않는 그 누구의 《해상 및 내륙, 공중침투 등 다양한 도발》에 대해 잘 준비하고있다고 한다. 아직도 저들이 팽창한 위위를 받고나 있는듯이 말이다.

입은 비틀어졌어도 말은 바르도록 하라고 하였다. 올해에 우리가 북남사이의 교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 대결구면을 해소할데 대한 여러가지 중대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는것은 사실이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세계의 공정한 여론들이 극구 지지, 찬동한 우리의 대화체와 성의있는 노력이 어떻게 도발이 될수 있으며 위협이란 또 무슨 피이한 소리인가.

구태여 《도발》에 대해 말한다면 그 장본인은 다른이런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다. 지난 해에 일어난 특대형도발사건인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도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야망이 빚어진 반공화국도발

여론조사를 통해 본 민심

남조선에서 《세보총선거》가 눈앞에 막두하면서 여론조사업은 어느 당의 지지율이 더 높은가 하는데로 모아지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KBS》방송은 이번 《국회》의원 《세보총선거》가 될 3곳의 《선거구》들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선거구》에서 민주당후보가 45.1%, 《한나라당》 후보가 36.7%로 조사되었고 경상남도 김해를 《선거구》에서는 국민참여당후보 42%, 《한나라당》 후보 38.1%로 집계되었다.

남조선에서 경기도 분당지역 이라고 하면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터밭》인것으로

하여 《선거》때마다 이 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면 당선은 다 먹은 떡이듯이만 반대로 야당후보는 패자의 고배를 마시기 일쑤였다.

그러나 현실은 사람들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어놓았다. 공적 《선거》운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야당세력에 대한 지지율은 《한나라당》 후보를 아연케 하고있다.

경상남도 김해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보수당국의 《선거》공약파기로 《한나라당》에 대한 이 지역 인민들의 불신은 날로 더욱 커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에 대해 《무너지는 《한나라당》, 《등을 돌리기 시작한 민심》 등으로 보도하면서 《계속 추락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전하고 있다.

이런 속에 얼마전 남조선의 한 여론조사전문기관이 성인을 대상으로 《이번 《선거》에서 어떤 기준에 가장 중점을 두고 투표하겠는가.》라고 질문하였는데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대답하여 여론이 불꽃을 뿜고 있다.

여론조사결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만약 《정권》과 《한나라당》을 결단코 심판하고야말려는 남조선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한나라당》 집권세력은 이제 와서 그 누구를 맞았겠도 못된다. 예로부터 제 대접은 제가 받는다고 하였다.

본사기자 라설하

파쇼악법철폐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

남조선의 《보안법》피해자들의 모임이 20일 성명을 발표하여 파쇼악법철폐를 위한 투쟁에 나설것을 선언하였다.

성명은 《보안법》에 의해 통일인사들과 애국적항심을 가진 사람들이 희생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등 모진 고통을 당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현 당국이 악법을 마구 휘둘러 온 남녘땅을 공포에 몰아넣고있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국제기구까지 철폐를

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테러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북침전쟁연습에 피괴폭제공공무력과 민간, 행정, 경찰기관들까지 동원시키려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피괴폭군은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침투》와 《국지도발》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경기도와 강화도일대에서 화약내를 질게 쫓아다녔다. 또한 고성일대에서 소 함동훈련이 있었을것을 빌어놓았다.

최근 호전광들은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의 책임을 억지로 우리에게 넘겨주며 잊지도 않는 그 누구의 《해상 및 내륙, 공중침투 등 다양한 도발》에 대해 잘 준비하고있다고 한다. 아직도 저들이 팽창한 위위를 받고나 있는듯이 말이다.

입은 비틀어졌어도 말은 바르도록 하라고 하였다. 올해에 우리가 북남사이의 교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 대결구면을 해소할데 대한 여러가지 중대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는것은 사실이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세계의 공정한 여론들이 극구 지지, 찬동한 우리의 대화체와 성의있는 노력이 어떻게 도발이 될수 있으며 위협이란 또 무슨 피이한 소리인가.

구태여 《도발》에 대해 말한다면 그 장본인은 다른이런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다. 지난 해에 일어난 특대형도발사건인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도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야망이 빚어진 반공화국도발

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테러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북침전쟁연습에 피괴폭제공공무력과 민간, 행정, 경찰기관들까지 동원시키려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피괴폭군은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침투》와 《국지도발》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경기도와 강화도일대에서 화약내를 질게 쫓아다녔다. 또한 고성일대에서 소 함동훈련이 있었을것을 빌어놓았다.

최근 호전광들은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의 책임을 억지로 우리에게 넘겨주며 잊지도 않는 그 누구의 《해상 및 내륙, 공중침투 등 다양한 도발》에 대해 잘 준비하고있다고 한다. 아직도 저들이 팽창한 위위를 받고나 있는듯이 말이다.

입은 비틀어졌어도 말은 바르도록 하라고 하였다. 올해에 우리가 북남사이의 교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 대결구면을 해소할데 대한 여러가지 중대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는것은 사실이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세계의 공정한 여론들이 극구 지지, 찬동한 우리의 대화체와 성의있는 노력이 어떻게 도발이 될수 있으며 위협이란 또 무슨 피이한 소리인가.

구태여 《도발》에 대해 말한다면 그 장본인은 다른이런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다. 지난 해에 일어난 특대형도발사건인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도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야망이 빚어진 반공화국도발

파쇼악법철폐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

남조선의 《보안법》피해자들의 모임이 20일 성명을 발표하여 파쇼악법철폐를 위한 투쟁에 나설것을 선언하였다.

성명은 《보안법》에 의해 통일인사들과 애국적항심을 가진 사람들이 희생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등 모진 고통을 당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현 당국이 악법을 마구 휘둘러 온 남녘땅을 공포에 몰아넣고있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국제기구까지 철폐를

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테러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북침전쟁연습에 피괴폭제공공무력과 민간, 행정, 경찰기관들까지 동원시키려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피괴폭군은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침투》와 《국지도발》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경기도와 강화도일대에서 화약내를 질게 쫓아다녔다. 또한 고성일대에서 소 함동훈련이 있었을것을 빌어놓았다.

최근 호전광들은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의 책임을 억지로 우리에게 넘겨주며 잊지도 않는 그 누구의 《해상 및 내륙, 공중침투 등 다양한 도발》에 대해 잘 준비하고있다고 한다. 아직도 저들이 팽창한 위위를 받고나 있는듯이 말이다.

입은 비틀어졌어도 말은 바르도록 하라고 하였다. 올해에 우리가 북남사이의 교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 대결구면을 해소할데 대한 여러가지 중대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는것은 사실이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세계의 공정한 여론들이 극구 지지, 찬동한 우리의 대화체와 성의있는 노력이 어떻게 도발이 될수 있으며 위협이란 또 무슨 피이한 소리인가.

구태여 《도발》에 대해 말한다면 그 장본인은 다른이런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다. 지난 해에 일어난 특대형도발사건인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도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야망이 빚어진 반공화국도발

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테러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북침전쟁연습에 피괴폭제공공무력과 민간, 행정, 경찰기관들까지 동원시키려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피괴폭군은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침투》와 《국지도발》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경기도와 강화도일대에서 화약내를 질게 쫓아다녔다. 또한 고성일대에서 소 함동훈련이 있었을것을 빌어놓았다.

최근 호전광들은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의 책임을 억지로 우리에게 넘겨주며 잊지도 않는 그 누구의 《해상 및 내륙, 공중침투 등 다양한 도발》에 대해 잘 준비하고있다고 한다. 아직도 저들이 팽창한 위위를 받고나 있는듯이 말이다.

입은 비틀어졌어도 말은 바르도록 하라고 하였다. 올해에 우리가 북남사이의 교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 대결구면을 해소할데 대한 여러가지 중대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는것은 사실이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세계의 공정한 여론들이 극구 지지, 찬동한 우리의 대화체와 성의있는 노력이 어떻게 도발이 될수 있으며 위협이란 또 무슨 피이한 소리인가.

구태여 《도발》에 대해 말한다면 그 장본인은 다른이런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다. 지난 해에 일어난 특대형도발사건인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도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야망이 빚어진 반공화국도발

경제파국과 민생파탄은 누가 몰아왔는가

《한나라당》 보수세력이 《3대서민 고통문제》를 내놓고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 《서민들의 희망을 주겠다.》, 《부동산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는 하늘을 울릴 정도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1인당 재산평균액이 22억 8000여만원에 달하는 대부호들로 이루어져있다. 보수당국이 각관을 내걸기 바쁘게 《정부차관》, 《장부차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사실을 사람들은 잊지 않고있다. 자기 배 부르면 남의 배 고프도록 모른다며 실사자들이 근로인생을 위한 정치를 시키라더니 만무한 것이다.

문제는 보수당국이 가지고있는 막대한 재산이 근로대중의 피와 땀이 스민 엄청난 돈을 자기합작과 탈세 등 온갖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취한것이라는 것이다. 보수세력의 집권직후 새 세 집권이 제일 비싼 서울시 강남구에 여러개의 코트야베르를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투기의혹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당국자들의 일가족들까지 막대한 땅의 현금과 주식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투하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금품수수사건에 무더기로 연루된 사건. 《상인고문》이라는 자기가 국방부와 짜고 검은 돈을 받아먹은 사건, 고위공무원들과 4만여명에 달하는 일반공무원들이 《알수없보조직원》을 부정부패를 위한 사건 등 부정부패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3년간 남조선사회를 소란케 한 부정부패사건들중 그 어느 것이나 집권세력이 걸려들지 않은 사건이 없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인민들이 똑똑한 정치철학도 없고 신대실각도 무던 권력집단이 검은돈을 끌어모으는 구멍수를 찾는데서 어떻게 그렇게도 머리를 잘 쓰지 못했겠고 자유조소했겠는가. 매일 이다시 터져나오는 특대형부정부패사건들은 《민생항상》과 《깨끗결백》, 《부정부패척결》과 《깨끗한 정치》를 넘볼처럼 위태로워있는 《한나라당》 보수집권세력의 위신적 존엄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인민을 등진 반역정치는 부정부패를 동반하기마련이다. 남조선보수세력의 집권 3년간 행적은 부자들과 재벌들을 위한 정치만을 강행실시하면서 인민들의 피를 짜내어 저들의 탐욕적리익만을 추구하여온 부정부패적악으로 가득차있다. 남조선이 오늘날과 같은 어비규환의 수렁으로 된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 보수집권세력의 부정부패와 반인민적악정에 근본원인이 있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집권 3년간

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테러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북침전쟁연습에 피괴폭제공공무력과 민간, 행정, 경찰기관들까지 동원시키려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피괴폭군은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침투》와 《국지도발》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경기도와 강화도일대에서 화약내를 질게 쫓아다녔다. 또한 고성일대에서 소 함동훈련이 있었을것을 빌어놓았다.

최근 호전광들은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의 책임을 억지로 우리에게 넘겨주며 잊지도 않는 그 누구의 《해상 및 내륙, 공중침투 등 다양한 도발》에 대해 잘 준비하고있다고 한다. 아직도 저들이 팽창한 위위를 받고나 있는듯이 말이다.

입은 비틀어졌어도 말은 바르도록 하라고 하였다. 올해에 우리가 북남사이의 교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 대결구면을 해소할데 대한 여러가지 중대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는것은 사실이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세계의 공정한 여론들이 극구 지지, 찬동한 우리의 대화체와 성의있는 노력이 어떻게 도발이 될수 있으며 위협이란 또 무슨 피이한 소리인가.

구태여 《도발》에 대해 말한다면 그 장본인은 다른이런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다. 지난 해에 일어난 특대형도발사건인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도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야망이 빚어진 반공화국도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치신 전설적 위인의 한생

행사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파키스탄 라호르, 스웨리에 스투름홀름에서는 파담회, 기네 피나크리에서는 강연회와 독보회가 5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파키스탄민족로동자당 판관주위원회, 아시아 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로조련맹, 농민위원회,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라호르지부, 스웨리에의 공산당, 노르웨이공산당, 기네 김일성화국정일화협회, 민족박물관, 기네조선친선협회의 인사들, 중견이 참가하였다.

파키스탄민족로동자당 판관주위원회 총서기와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라호르지부서기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언제나 인민을 믿으시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신데 대하여 칭송하고 김일성주석의 위업은 김정일명도자에 의하여 반드시 완성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스웨리에의 공산당 위원장과 노르웨이공산당 외스트폴드스위원회 위원장은 김일성주석께서 야말로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가장 훌륭한 수령이시었다, 그이는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조국과 인민의 번영과 행복,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이시었다고 칭송하였다.

기네 김일성화국정일화협회 위원장은 태양의 꽃 김일성화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심에 떠날때마다 우리에 만발하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기네 김일성화국정일화협회 위원장은 태양의 꽃 김일성화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심에 떠날때마다 우리에 만발하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류사상에 특기할 업적을 쌓으시었다. 그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창시자이시다. 그이께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으로써 조선혁명은 류레없이 복잡한 시련속에서도 승승장구해오수 있었으며 진보적인류는 민족해방과 반제투쟁의 위대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김일성주석은 세계사화 위업의 위대한 수령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많은 나라들의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성실성으로 도와주시였으며 사회주의운동과 불려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었다.

김일성주석은 세계사화 위업의 위대한 수령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많은 나라들의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성실성으로 도와주시였으며 사회주의운동과 불려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었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은 김정일명도자에 의하여 드림없이 이어지고있다.

주석의 넘후와 유혼이 훌륭히 실현되어가고있는 조선의 현실은 김일성주석의 혁명력사가 끊임없이 흐르고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은 김정일명도자에 의하여 드림없이 이어지고있다.

주석의 넘후와 유혼이 훌륭히 실현되어가고있는 조선의 현실은 김일성주석의 혁명력사가 끊임없이 흐르고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며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주석의 생애와 업적은 인류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의 한생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지켜 주신 전설적위인의 력사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을 해방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시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을 해방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시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을 해방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시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을 해방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시었다.

일기분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25년 1월 아버넌에서 포디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었다는 소식을 받으시고 아버넌의 현수, 조선민족의 원수를 갚을 결심밑에 만경대를 떠나신 길이 20년만에 다시 만경대로 이어진대 대해 흠뻑이시는 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25년 1월 아버넌에서 포디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었다는 소식을 받으시고 아버넌의 현수, 조선민족의 원수를 갚을 결심밑에 만경대를 떠나신 길이 20년만에 다시 만경대로 이어진대 대해 흠뻑이시는 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25년 1월 아버넌에서 포디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었다는 소식을 받으시고 아버넌의 현수, 조선민족의 원수를 갚을 결심밑에 만경대를 떠나신 길이 20년만에 다시 만경대로 이어진대 대해 흠뻑이시는 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25년 1월 아버넌에서 포디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었다는 소식을 받으시고 아버넌의 현수, 조선민족의 원수를 갚을 결심밑에 만경대를 떠나신 길이 20년만에 다시 만경대로 이어진대 대해 흠뻑이시는 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25년 1월 아버넌에서 포디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었다는 소식을 받으시고 아버넌의 현수, 조선민족의 원수를 갚을 결심밑에 만경대를 떠나신 길이 20년만에 다시 만경대로 이어진대 대해 흠뻑이시는 전하였다.

최고수준의 대형요술공연을 보았다

5월1일경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대형요술공연을 관람한 외국에술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중국 하문소백로민속무용단 무용단장 양홍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국 하문소백로민속무용단 무용단장 양홍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국 하문소백로민속무용단 무용단장 양홍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국 하문소백로민속무용단 무용단장 양홍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국 하문소백로민속무용단 무용단장 양홍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국 하문소백로민속무용단 무용단장 양홍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국 하문소백로민속무용단 무용단장 양홍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음모책동 규탄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메디네자드가 최근 한 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음모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메디네자드가 최근 한 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음모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메디네자드가 최근 한 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음모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메디네자드가 최근 한 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음모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메디네자드가 최근 한 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음모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메디네자드가 최근 한 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음모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메디네자드가 최근 한 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음모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메디네자드가 최근 한 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음모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중국에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1 081만 8 000부의 비법적인 출판물을 회수하였다.

중국에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1 081만 8 000부의 비법적인 출판물을 회수하였다.

중국에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1 081만 8 000부의 비법적인 출판물을 회수하였다.

중국에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1 081만 8 000부의 비법적인 출판물을 회수하였다.

중국에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1 081만 8 000부의 비법적인 출판물을 회수하였다.

중국에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1 081만 8 000부의 비법적인 출판물을 회수하였다.

중국에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1 081만 8 000부의 비법적인 출판물을 회수하였다.

중국에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1 081만 8 000부의 비법적인 출판물을 회수하였다.

이란에서

이란에서 최근 세 방사능관측소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방사능관측소가 5 개로 늘어났다.

이란에서 최근 세 방사능관측소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방사능관측소가 5 개로 늘어났다.

이란에서 최근 세 방사능관측소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방사능관측소가 5 개로 늘어났다.

이란에서 최근 세 방사능관측소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방사능관측소가 5 개로 늘어났다.

이란에서 최근 세 방사능관측소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방사능관측소가 5 개로 늘어났다.

이란에서 최근 세 방사능관측소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방사능관측소가 5 개로 늘어났다.

이란에서 최근 세 방사능관측소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방사능관측소가 5 개로 늘어났다.

이란에서 최근 세 방사능관측소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방사능관측소가 5 개로 늘어났다.

세계의 다국적기업

얼마전 상해협조기구 성원국 국방장관이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상해협조기구에서 진행되었다.

얼마전 상해협조기구 성원국 국방장관이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상해협조기구에서 진행되었다.

얼마전 상해협조기구 성원국 국방장관이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상해협조기구에서 진행되었다.

얼마전 상해협조기구 성원국 국방장관이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상해협조기구에서 진행되었다.

얼마전 상해협조기구 성원국 국방장관이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상해협조기구에서 진행되었다.

얼마전 상해협조기구 성원국 국방장관이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상해협조기구에서 진행되었다.

얼마전 상해협조기구 성원국 국방장관이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상해협조기구에서 진행되었다.

얼마전 상해협조기구 성원국 국방장관이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상해협조기구에서 진행되었다.

특대형지진으로 큰 타격을 받은 일본경제

일본에서 방사능설치시음이 검출되었다. 지진으로 도로들이 끊어지고 물자유통망이 파파피로써 제해지역에 대한 식료품공급이 긴장되고있다.

일본에서 방사능설치시음이 검출되었다. 지진으로 도로들이 끊어지고 물자유통망이 파파피로써 제해지역에 대한 식료품공급이 긴장되고있다.

일본에서 방사능설치시음이 검출되었다. 지진으로 도로들이 끊어지고 물자유통망이 파파피로써 제해지역에 대한 식료품공급이 긴장되고있다.

일본에서 방사능설치시음이 검출되었다. 지진으로 도로들이 끊어지고 물자유통망이 파파피로써 제해지역에 대한 식료품공급이 긴장되고있다.

일본에서 방사능설치시음이 검출되었다. 지진으로 도로들이 끊어지고 물자유통망이 파파피로써 제해지역에 대한 식료품공급이 긴장되고있다.

일본에서 방사능설치시음이 검출되었다. 지진으로 도로들이 끊어지고 물자유통망이 파파피로써 제해지역에 대한 식료품공급이 긴장되고있다.

일본에서 방사능설치시음이 검출되었다. 지진으로 도로들이 끊어지고 물자유통망이 파파피로써 제해지역에 대한 식료품공급이 긴장되고있다.

일본에서 방사능설치시음이 검출되었다. 지진으로 도로들이 끊어지고 물자유통망이 파파피로써 제해지역에 대한 식료품공급이 긴장되고있다.

일본경제

일본에서 방사능설치시음이 검출되었다. 지진으로 도로들이 끊어지고 물자유통망이 파파피로써 제해지역에 대한 식료품공급이 긴장되고있다.

일본에서 방사능설치시음이 검출되었다. 지진으로 도로들이 끊어지고 물자유통망이 파파피로써 제해지역에 대한 식료품공급이 긴장되고있다.

일본에서 방사능설치시음이 검출되었다. 지진으로 도로들이 끊어지고 물자유통망이 파파피로써 제해지역에 대한 식료품공급이 긴장되고있다.

일본에서 방사능설치시음이 검출되었다. 지진으로 도로들이 끊어지고 물자유통망이 파파피로써 제해지역에 대한 식료품공급이 긴장되고있다.

일본에서 방사능설치시음이 검출되었다. 지진으로 도로들이 끊어지고 물자유통망이 파파피로써 제해지역에 대한 식료품공급이 긴장되고있다.

일본에서 방사능설치시음이 검출되었다. 지진으로 도로들이 끊어지고 물자유통망이 파파피로써 제해지역에 대한 식료품공급이 긴장되고있다.

일본에서 방사능설치시음이 검출되었다. 지진으로 도로들이 끊어지고 물자유통망이 파파피로써 제해지역에 대한 식료품공급이 긴장되고있다.

일본에서 방사능설치시음이 검출되었다. 지진으로 도로들이 끊어지고 물자유통망이 파파피로써 제해지역에 대한 식료품공급이 긴장되고있다.

바다물면 상승

중국에서 지난 30년동안 연해지역의 바다물면이 해마다 평균 2.6mm 상승하였다.

중국에서 지난 30년동안 연해지역의 바다물면이 해마다 평균 2.6mm 상승하였다.

중국에서 지난 30년동안 연해지역의 바다물면이 해마다 평균 2.6mm 상승하였다.

중국에서 지난 30년동안 연해지역의 바다물면이 해마다 평균 2.6mm 상승하였다.

중국에서 지난 30년동안 연해지역의 바다물면이 해마다 평균 2.6mm 상승하였다.

중국에서 지난 30년동안 연해지역의 바다물면이 해마다 평균 2.6mm 상승하였다.

중국에서 지난 30년동안 연해지역의 바다물면이 해마다 평균 2.6mm 상승하였다.

중국에서 지난 30년동안 연해지역의 바다물면이 해마다 평균 2.6mm 상승하였다.